



독일 관광대기업 TUI, CP Ships 매수에 합의 하팍로이드, 세계 5위 컨테이너선사로 부상

독일 관광업분야 대기업인 TUI그룹은 8월21일 캐나다와 영국에 거점을 둔 컨테이너선사 CP Ships를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매수 총액은 17억유로이다. 세계적인 수요증가를 바탕으로 정기선 업계에서는 규모 확대를 도모하는 M&A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동 그룹은 7월부터 표면화한 매수 교섭에서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프랑스선사 CMA-CGM과 COSCO 등과의 경쟁에서 최종 낙점됐다.

TUI 산하의 하팍로이드가 CP Ships를 통합하면 선박량 세계 제 5 위 의 선사로 거듭난다.

TUI는 최근 3개월동안의 매매고 가중평균가격(VWAP)에 24.9% 추가한 주당 21.50달러로, CP Ships의 모든 주식을 매입한다고 제안했다.

매수를 발표하기 이전의 8월19일자 VWAP과 비교해도 9.7% 높다. 매매액에는 6월30일 시점으로 CP Ships의 부채 2억6,100만유로도 포함된다.

별써 CP Ships의 경영진은 주주가 TUI안을 받아들이도록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TUI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자금의 용자유치에 성공했고, 금년 4/4분기에 매수를 완료하여, 100% 자회사화할 전망이다.

현재, CP Ships는 캐나다마리타임캐스트, 라익스라인즈, 콘트십, ANZDL, TMM라인즈, 이탈리아라인의 7개의 브랜드로 항로를 운영한다.

특히 대서양 항로에서의 입지가 강하고, 몬트리올에는 캐나다 최대의 컨테이너 터미널도 보유하고 있다.

전세계 서비스항로는 하팍로이드가 65개 노선, CP Ships이 38개 노선으로, 이 중 11개 노선은 중복되지만, 기항지가 다르다.

또한 양 회사의 통합으로 선박량의 증가 등으로 운항비의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UI는 통합 효과를 1억8,000만유로라고 추측하는 한편, 2006년을 중심으로 1억 유로의 전체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타르 사, LNG선 90척 확보 추진 2010년에 세계 LNG선대 25% 차지

70척의 LNG선 건조계획을 추진해 오던 QGTC(Qatar Gas Transport Co.)사가 향후 5년간 총 90척의 LNG선 확보를 포함한 대규모 선박투자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QGTC사는 2010년에 세계 LNG 선대의 25% 이상을 지배하는 세계 최대의 LNG 선사가 될 전망이며, 연말까지 20척의 취항과 28척의 신조선 발주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QGTC사는 저비용의 선박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안전 및 책임경영을 보장하는 운항선사의 선정과 숙련선원의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QGTC는 LNG선 확보계획과 별도로 LPG 및 유황(Sulphur)의 수송을 위한 별도의 선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카타르 라스 라판(Ras Laffan)항에 최신설비의 도크를 건설해 LNG 및 LPG 선의 수리조선소로 활용할 예정이다.